

# 제주대신문

## 끊임없는 교대 학생식당 불만... 생협이 식당 운영 맡아야 김철수 교수 제7대 교수회장 당선

교대생 절반이 학생식당 '맛 없고 값 비싸' 이용 안해

생협 운영 여부 이달 중순 판가름... 적극적 지원 호소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에 대한 학생들의 끊임없는 불만으로 사라캠퍼스 교학처(교학처장 이주섭 초등학교교육전공 교수)가 생활협동조합(이사장 고윤희 학생처장 수학교육과 교수, 이하 생협)을 유치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생협이 직접 운영하는 아라캠퍼스 백두관 식당과 달리 사라캠퍼스 학생식당은 입찰을 통한 외주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임대형식 때문에 학생들이 식당에 불만을 가져도 학내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음식의 질 저하와 비싼 가격, 영리적 매점 운영 등 학생들의 원성을 사면 학생식당은 내년 1월 16일 계약이 만료된다.

이주섭 교학처장은 “외부업체가 학내 식당에 입주하기 위해선 신청서와 함께 다른 업체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높은 입찰금을 제시한다”며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식재료비를 줄이는 등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생협은 대학 구성원에 대한 후생·복지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설립 목적으로 갖는 단체”라며 “생협이 들어선다면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 학생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대학 학생회(회장 오재준 초등학교교육전공 3)는 9월 10일부터 8일간 전체학생 485명 중 396명 대상(81.6%)으로 학생

식당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학생식당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47%에 달했다. 일주일에 1~2회 이용한다는 학생도 34%로 나타날 만큼 대부분의 학생이 학생식당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식당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맛이 없다’는 응답이 50.6%를 차지했고 ‘가격이 비싸다’가 31.9%로 뒤를 이었다.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 39.4%와 ‘매우 불만족’이 27.4%를 차지했다. 이어 다른 업체가 들어와 학식이 개선된다면 학생식당을 이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있다’라고 대답한 학생은 83.8%로 대부분의 학생이 개선된 학식을 고대하고 있다.

고주희(초등교육학전공 3)씨는 “식당 음식이 맛이 없고 매번 동일한 메뉴가 나와 배달음식을 시켜먹거나 도시락을 싸 온다”며 “식사 시간이 부족할 경우만 어쩔 수 없이

식당을 이용한다”고 말했다.

학생회에서는 생협의 운영을 위해 현재 학생식당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불만을 종합한 자료를 생협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대학 학생들도 전교생 조합원 가입을 목표로 이를 추진하고 있고 교수들 29명도 조합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10월 중순에 열릴 이사회에서 사라캠퍼스 내 생협 유치에 대한 심의 통과 여부가 큰 관심사다. 황우화 생협 사무국장은 “이번 심의는 학생들의 생활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생협이 이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 당국의 지원이 없다면 이번 심의가 원활히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대학본부와 교학처, 생협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여러 대안들을 모색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찬우 기자

투표서 315표(78.2%) 득표

“섬김과 봉사 정신으로 적극 소통”

제7대 교수회장에 김철수(전산통계학과) 교수가 당선됐다.

9월 30일 치러진 제7대 교수회장 선거에서 김철수 교수는 투표수 409표 중 315표(78.2%)를 획득해, 88표(21.8%)를 획득한 이창준(체육학부) 교수를 227표차로 제치고 제7대 교수회장에 당선됐다.

이번 제7대 교수회장 선거는 570명 중 409명이 투표해 71.7%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또 무효표는 총 6표로 집계됐다.

김철수 신임 교수회장은 소견서를 통해 “대학발전을 위한 정책, 대학생에서의 고민들을 청취하며 같이 공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정책이 대학의 일로 추진되도록 앞장서 나가겠다”며 “봉사와 섬김의 정신으로 사심 없이 일을 해나가 믿을 수 있

는 교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교수는 제주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원에서 이학 석사, 이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난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연과학대학 학장을 지냈다. 이에 앞서 2007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제주대 정책연구단장을 역임했다. 또 2004년 11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보화이러닝분과위원과 2003년 3월부터 2005년 5월까지 전산정보원장으로 활동했다. 김철수 교수는 지난 1989년 4월 제주대에 부임했다.

김철수 교수의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2년이다. 김보라 기자



## 제4회 JNU오픈캠퍼스 열려

10월24일·11월21일 두차례 예정

제4회 JNU오픈캠퍼스가 9월 26일 아라뮤즈홀에서 열렸다.

이번 오픈캠퍼스에는 도내 9개 고등학교 총 125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1부에서 학생들은 대학홍보 동영상 시청과 입학전형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2부에서 학생들은 19개 학과, 2개 학부 중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 각 학과별 전공탐색을 실시했다. 질의 응답을 통하여 세부 전공분야와 대학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식품영양학과(학과장 박성수 교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김하림(제주고 3)군은 “내가 진학하고 싶은 학과에서 상투과자(일본 전통과자) 만들기 실습을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고윤희(수학교육과 교수) 학생처장은 “학생들이 제주대에 입학해 더 큰 꿈을 키워가기를 바란다”며 “대학생활이나 전공에 대해 궁금한 점을 오픈캠퍼스를 통해 많이 얻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5회·6회차 오픈캠퍼스는 10월 24일과 11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김해건 기자



9월 27일 탐동 해변공원에서 수의과대학 학생회 주최로 '2014 반려동물한마당'이 열린 가운데 수의사체험에 참가한 백혜림(남광초 3)양이 자신의 반려견을 진찰하고 있다.강경태 기자 관련기사 2면

## ‘제주 할망’이 들려주는 살아있는 박물관

생생한 제주 전통문화 체험

박물관(관장 허남춘 국어국문학과 교수)이 주최하는 ‘살아있는 박물관: 제주 이야기 in Museum’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열린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제주 어르신들과 만나 소통하고 제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행사에서 어르신들은 학생들에게 제주의 설화, 역사, 생업, 민요, 음식 등에 대해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 야기를 진행하는 어르신들은 제주 전통문화에 관련한 구술 작업을 진행해온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다.

또한 제주 잔치 음식 ‘고깃반’ 맛보기 체험과 소리극 ‘우리 할망네 영 살았수다’도 함께 운영한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제주 음식 이야기 △제주 목축 △제주 마을 설화 △제주 해녀 △제주 민속 △제주 신화 △제주 민요 △제주 소리 이야기 등으로 진행된다.

강은실 학예연구사는 “인문대학을 제외하고 다른 단과대학 학생들은 제주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조금만 시간을 내서 제주의 옛 문화를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제주대학교박물관 학예실(☎754-2242) 백승규 기자

## 제주4·3 연구 전담 연구센터 개설

탐라문화연구원 부설

10월 8·9일 국제학술대회 개최

제주4·3 연구 전담을 위한 ‘제주4·3연구센터’가 9월 19일 개설됐다.

센터는 제주4·3을 학술적으로 연구해 그 정신과 의의를 널리 알리고 사회 평화와 인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됐다. 탐라문화연구원(원장 김동운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부설기관으로 개설됐으며, 센터장으로는 4·3문학 연구자인 김동운 탐라문화연구원장이 겸임 발령됐다.

그동안 우리대학은 지역거점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제주4·3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의 부재에 대해 많은 불만이 제기됐었다. 2012년 11월 28일자 제주대신문(883호) 사실에서도 ‘제주4·3은 국제적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은 제주4·3에 대해 연구와 교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센터의 설립으로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책임 있는 연구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4·3평화재단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연구도 이뤄진다.

이 센터는 제주4·3사건 자료와 주변 자료 조사, 연구 발표와 연구 자료의 간행과 홍보, 다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의 사

업을 전개한다.

김동운 센터장은 “연구기관의 설립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제주4·3을 전문으로 다루는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며 “제주4·3의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센터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10월 8-9일 ‘오키나와 문화와 동아시아’를 주제로 마타요시 에이키(오키나와 소설가)와 다카하시 토시오(와세다대학교 교수) 등을 초청해 센터 개설키담 국제학술대회를 연다. 유주연 기자

자기소개 콘테스트 참가 안내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운 통신공학과 교수)는 10월 2일 체육관에서 열리는 취업박람회 프로그램으로 ‘자기소개 콘테스트’를 진행한다.

참가 접수는 현장에서 가능하며 제주지역 청년 구직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3분 이내로 자유형식의 자기소개를 준비하면 된다.

콘테스트 1등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되며 2등과 3등에게도 각각 30만원, 10만원이 수여된다. 또 참가자 전원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김해건 기자



##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에서 우수인재를 선발합니다.

풍력발전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2015학년도 전기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석사과정 00명, 박사과정 0명 (특별전형)	특	전	
모집학과	· 석사과정 : 풍력공학부(풍력기계시스템전공, 풍력·전기 제어 시스템전공, 풍력해양·토목공학전공) 3개 전공 · 박사과정 : 풍력특성화협동과정			
지원 자격	· 전공제한 없음(이공계열·인문사회계열 등) · TOEIC 600점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졸업 후 진로	선발방법	
원서접수	· 2014. 10. 13.(월) 10:00 ~ 10. 16.(목) 17:00 ·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ibsi.jejunu.ac.kr) · 입학원서 접수 대행사 (http://www.uwayapply.com)			문의처
면접시험	· 면접고사: 2014. 10. 28.(화) 10:00 ~			

- 석·박사 월 70만원 장학금 지원
-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외 우수대학 학점교류 지원금 월 100만원 지급 (유럽 : 알브르그대학(덴마크), 델프트공대(네덜란드), 러프 버러대학(영국) / 일본 : 아시카가 공대 등)
- 우수 대학원생에게 국내외 인턴십 지원금 내규에 따라 지급 (한국남부발전,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네덜란드 ECN, 독일 Lahmeyer, 영국 Lomax 등)

- 한국남부발전, 제주에너지공사, 대림산업, 효성중공업, 대한전선, 한국전력 등 국내 대기업 및 국가 공기업 (풍력공학부 석·박사 졸업생 취업 자료에 근거함)

- 본 과정은 면접으로 합격자 선발

- 제주대학교 입학관리과 (064)754-3991
- 대학원 풍력공학부 사무실 (064)754-4400
- 홈페이지 : 풍력특성화대학원 (http://gwe.jejuni.ac.kr)

제주대학교 대학원 풍력공학부



사 설

구성원 모두 대학의 사명 다할 때

지난주 아랏벌을 뜨겁게 달궜던 아라대동제가 막을 내렸다. 곳은 비닐썩 속에서의 첫날 개막식 행사 치곤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가 비교적 높았다. 또한 자기개발 강연과 ‘너의 목소리가 들려’, ‘과 vs 과 : 응고집전’, ‘청춘을 노래하다’ 같은 학생참여 프로그램이 많아 대체로 호평을 받았다. 행사기간 내내 큰 혼란과 사고가 없었고 하기에 다행이다. 이번 대동제가 젊은 지성의 창의적 에너지와 열정이 빛어내는 대학문화를 보여줬는가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대동제 준비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한 총학생회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는 격려를 받기에 손색이 없다. 그래서인지 곧 차분해진 캠퍼스 분위기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졸업을 목전에 둔 4학년 학생들은 잠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도서관에서 취업 공부에 열심이다. 또 설렘을 안고 첫 대동제를 지켜봤던 신입생들은 아쉬움 속에 다시 학생의 본분으로 돌아왔다.

대학이란 학생들의 활력이 넘치는 움직임에서 그 힘찬 생명력을 찾을 수 있다. 학생들 또한 진리 탐구의 자세로 배움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모습이 조화를 이룬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제자리가 있는 법이다.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가 본래 있던 자리가 있다. 그것들이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삶과 조화를 이루고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게 된다.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교수는 교수의 자리에, 직원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역할과 본분을 다할 때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다. 더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자리가 구별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각자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데서 출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가 그간 자신이 있던 자리에서 어떠한 노력을 다했는지를 되돌아 봤으면 한다. 수시로 자기 성찰과 확인이 요구되는 것이다.

대학 구성원들의 저마다 일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겠으나 일관된 목적은 대학의 본래 사명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학은 학생들의 자아 발견과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성인다운 사고와 행동으로 사회에서 바라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있다. 학생들 또한 인격을 도야하고 학문을 연마하여 미래의 자신을 준비하는 곳이란 점에서 학문 탐구에 있는 힘을 다해야 한다. 물론 학생들이 필요한 실용적 지식과 응용 기술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 일이며, 대학이 이를 돕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좋은 인격을 갖춘 지성인을 양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학의 사명이자 역할이다. 그래서 공부의 목적을 취업에 두기보다는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돼야 한다.

지성인이란 지속적으로 습득하는 지식과 경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다음, 창조적 사고와 미래 지향적 시각으로 폭넓은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의 소유자를 의미한다. 대학의 사명은 좋은 직장에 몇 명을 취업시켰는가가 아니라 건강하고 도덕적인 지성인의 양성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학생과 교수가 본분으로 지위전 일, 우선해야 할 일을 학문 탐구에서 되찾을 때 대학의 지향점에 합하여 하나가 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간 최낙진	편집국장 강경태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수시 원서접수 마감... 772명 모집에 3886명 지원

수의예과 21.8대 1로 최고 경쟁률... 중문·사학도 2배 뛰어

교육대학도 11.4대 1로 경쟁 치열... 해양경찰은 지원 하락

제주대는 9월 17일 ‘2015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결과 전체 772명 모집에 3886명이 지원해 평균 5.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수시 경쟁률 4.4대 1보다 0.63% 높은 수치다.

특히 일반전형에서 수의예과는 8명 모집에 174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21.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일반전형에서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경쟁률이 상승한 곳은 중어중문학과와 사학과로 2014학년도 수

시모집 경쟁률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 중어중문학과는 경우 7명 모집에 70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지난해 5.43대 1)을 기록했고 사학과는 7명 모집에 60명이 지원해 8.57대 1의 경쟁률(지난해 4.86대 1)을 보였다. 경성대학에서는 경영학과와 관광경영학과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다. 일반전형에서 경영학과가 11명 모집에 88명이 지원해 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는 지난해 4.09대 1에서 2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또 관광경영학과와 경쟁률은 6.77대 1(13명 모집, 88명 지원)로 지난해 5.60대 1에서 소폭 상승했다.

자연계열의 일반전형 지원율은 생활환경복지학과와 물리학과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폭 하락하거나 같았다. 생활환경복지학부 7명 모집에 71명이 지원해 10.14대 1을 나타냈고, 물리학과는 4.50대 1에서 6.50대 1로 소폭 상승했다. 해양산업경찰과의 경쟁률은 지난해 10대 1에서 5.43대 1로 하락했다. 세월호 참사 후 해양경찰을 해체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학과 지원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해경은 해체가 아니라 그 기능과 역할을 해양수산부와 경찰로 이관기로 정부가 가닥을 잡았다. 공학계열은 예년과 비슷한 경쟁률을 보였다.

보건계열인 간호대학은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9.50대 1로 여전히 최상위권 경쟁률을 유지했다. 교육대학 또한 11.35대 1로 지원율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지역인재육성 특별전형은 6명 모집에 43명이 지원해 7.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수시모집 현황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지민 기자

‘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강좌 1일부터 열려

국어문화원, 제주인의 의식주와 제주어 교육

국어문화원 제주어센터(원장 강영봉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10월 1일부터 도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어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2014 제주어학교-제주문화로 배우는 제주어’ 강좌를 개설한다.

강좌는 △집합교육 △찾아가는 제주어학교 △현장에서 배우는 제주어학교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진행된다.

‘집합교육’은 10월 10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금요일 인문대학 2호관에서 열린다. 수강생들은 제주인의 의식주와 전통 문화속에서 제

주어를 배우고 익힐 수 있다.

강의는 강영봉 원장, 김순자, 김미진 연구원(이상 국어문화원)과 고재환 전 제주교대 교수가 맡는다. 강정희(한남대 교수) 제주방언연구회 회장은 ‘소멸 위기의 제주어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한다.

‘찾아가는 제주어학교’는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 단체,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제주어 전공자가 찾아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희망 날짜에 강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 강의의

‘제주어 표기’, ‘생활 제주어’ 등도 함께 진행된다.

‘현장에서 배우는 제주어학교’는 11월 14일 성읍민속마을에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수, 대학원생과 마을 어르신이 제주어를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수강생들은 마을 속에 어우러진 제주어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강영봉 원장은 “소멸 위기의 제주어를 지키는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 강좌가 제주인의 삶과 정신이 깃든 제주어와 문화를 보전하고 확산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승규 기자

제주대 동문 단합과 우정 위한 ‘한마음 체육대회’ 열려

“모교와 제주사회에 헌신하자”

축구·승부차기·웃놀이 등 진행

‘제14회 제주대학교 총동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총동창회(회장 김태환 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최로 9월 28일 대운동장과 체육관에서 열렸다.

초청 귀빈과 동문, 가족 등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각 학과 동문회별 축구, 여자 승부차기, 웃놀이, 단체 줄넘기 등 4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김태환 총동창회장은 “제주대 동창회는 6만5000여 동문들의 단합과 우정을 위해 매년 동문가족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를 계기로 모든 동문들이 모교와



9월 28일 체육관에서 총동창회 주최로 '제14회 제주대학교 총동문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린 가운데 동문가족들이 웃놀이 경기를 하고 있다.

제주사회 발전에 헌신하자”고 말했다.

한편 제주대 총동창회는 올해로 창립 60주년을 맞았다. 강서윤 기자

칼리오페 50주년 기념음악회

고전음악감상 동아리인 칼리오페(동문화장 정은범 제주중앙여중 교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10월 3일 오후 5시 아라뮤즈홀에서 기념음악회를 갖는다.

‘50년의 회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3부로 나눠 합창, 피아노 연주, 협연 등 재학생과 동문이 함께하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현 기자

2014 반려동물 한마당

수의과대학 학생회(회장 문태성 수의학과 2)가 9월 27일 탐동 해변 공연장 일대에서 ‘2014 반려동물한마당’을 개최했다.

23번째로 개최된 반려동물한마당은 시민들에게 동물과 접촉 기회를 넓히고 동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무료진료 △수의사 체험 △반려동물상식 △예쁜 반려동물 뽑기 △취급동물체험 △말바닥 스탬프 △간식을 이겨라 △야생동물 구조센터 △애견 훈련 상담 센터 등의 부스가 진행됐다.

정현 기자

‘마필산업’ 교육생 모집

취업전략본부(본부장 임재윤 통신공학과 교수)는 제주지역 미래전략사업인 ‘마필산업’에 맞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생을 10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만 34세 이하 제주도 내 거주하는 미취업자이며 재학생은 4학년 1학기 수료자만 가능하다.

문의=취업전략본부 ☎ 754-4458 ~9) 전지민 기자

여대생 멘토링 신청 안내

취업전략본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송현선 한중과 교수)는 재학생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10월 6일까지 ‘여대생 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신청을 받고 있다.

여대생 멘토링은 도내 직종별 전문가로 활동 중인 동문 선배와 함께 하는 ‘동문 멘토링’과 여교수와 함께하는 ‘여교수 멘토링’으로 나눠 신청 받고 있다.

신청 방법은 취업전략본부 홈페이지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다.

오리엔테이션은 10월 7일 오후 2시(동문 멘토링)과 오후 4시(여교수 멘토링)에 진행된다. 문의=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 754-4452, 4457) 박소연 기자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새 취업강좌로 청년CEO 육성

청년 CEO를 육성하기 위한 창업교육센터(센터장 강철웅)의 창업강좌가 새롭게 탈바꿈했다.

교양 강좌인 ‘창업 라인업’을 올해부터 ‘블루안 컨설팅’과 연계해 진행한다. 기존 전문 CEO 초경 특강에서 벗어나 창업에 대한 체계적인 수업이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창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 사업구상을 세우도록 한다. 또 마지막 수업에서는 사업계획서 발표와 사업 진행시 미비점 등에 토의를 갖는다. 김하윤 기자

강기춘(경제학과) 교수

제주발전연구원장 내정

제주발전연구원 제9대 원장으로 강기춘(경제학과) 교수가 내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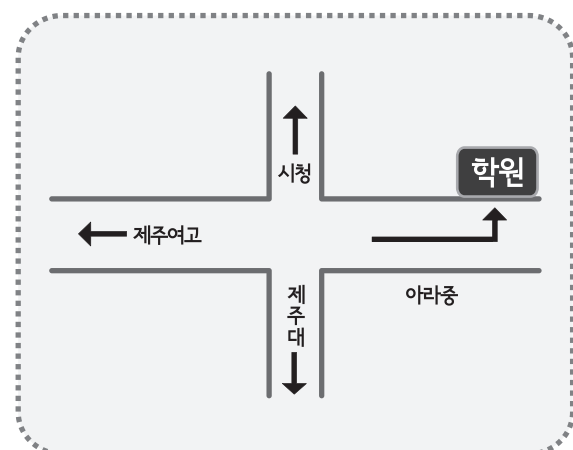
제주발전연구원은 9월 28일 원장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를 열고 6명의 응모자 중 강기춘 교수를 이사회(이사장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추천했으며 이사회는 30일 회의를 거쳐 이를 의결했다.

강 교수는 경남 출신으로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강 교수는 「비판적요인모형을 이용한 종합지표 작성 및 적용」,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이 참여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과 「계량경제학:이론과 실습」 등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펴냈다. 김하윤 기자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 ▶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 ▶ 주말교육가능
- ▶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 ↔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제34회 백록학술상 공모

신문방송사에서는 제주대신문 창간 60주년을 맞아 제34회 백록학술상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공동논문의 경우 3인까지만 가능함.
- 응모분야 : 일반논문 A4용지 10-30매 내외로 작성하고, 백록학술상 응모시 논문을 현장 접수하며, 반드시 원본 파일을 이메일 press@jeju.ac.kr로 제출해야 함.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분야, 졸업논문 응모가능  
※원본 파일은 본인 이름, 학과 등의 파일명으로 제출.
- 시 상 : 당선 - 총장상 및 상금 70만원  
가작 - 총장상 및 상금 40만원  
※수상인원은 논문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마감 : 2014년 12월 15일(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신문방송사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당선발표 : 2015년 신년특집호(2015년 1월 1일자)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당신의 열정을 기다립니다

제주대신문은 진실을 담아내고 정론을 펼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예비 언론인을 찾습니다. 당신의 젊음과 패기, 열정을 제주대신문에서 불태우십시오.

제62기 수습기자 모집

- 입사지원서 접수  
1) 대상: 2014학년도 학부 신입생  
2) 기간: 2014년 10월1일(수)~10월24일(금) 오후 6시까지  
3) 서류 제출: 입사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를 제주대신문 편집국으로 방문 제출
- 전형방법  
1) 면접: 입사지원서 제출 후 개별통보(추후 면접일 조정)  
2)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 혜택  
1)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2) 현직 기자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3) 중앙 언론에서 활동하는 편집시스템 통한 첨단 편집 교육  
4)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5) 취재수당 및 원고료 수시 지급
- 문의 제주대신문 편집국(064-754-2277-9)

제주대학교 신문방송사

건강증진센터 이용 안내

- 의사 진료 및 투약  
- 진료 시간 : 아라캠퍼스 - 화, 목(14:00 ~ 17:00)
- 응급 의약품 지급 및 외상 치료  
- 학교생활 중에 갑작스런 증상이 발생하거나 외상을 입었을 경우에 건강증진센터에서 적절한 간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안정실에서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 월-금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 건강증진실 운영  
- 체성분 검사 : 근육량과 체지방률 지수 등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분석해 몸상태를 평가하는 검사 방법인 체성분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신체 발달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언제든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 구급함(약품) 지원  
- 학생 및 교직원들의 공적인 행사시(M·T, 농촌봉사활동, 답사, 체육대회, 동아리활동, 장기 출장 등) 사고에 대비하여 구급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급함과 남은 약품은 행사가 끝난 뒤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성희롱·성폭력 상담부 운영  
- 우리학교 구성원들이 성차별 없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며, 상담부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담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위치 및 문의처  
아라캠퍼스 - 본관 대학원동 1층 ☎754-2059, 2060)  
사라캠퍼스 - 학생회관 1층 ☎754-4722)



교수시론



이동욱  
토목공학과 교수

“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옳은 답’ 하나가 아닌  
무수한 해답들이 있으며  
그 중에서 최선안을 찾아  
선택해야 한다  
”

긴 세월은 아니지만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일반기업 인이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특강을 한 바 있다. 대학 강단이든 외부 특강이든 교육자로서 강의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는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강의에 임하는 피교육자의 마음가짐과 자세는 많이 다름을 느끼곤 한다.

피교육자로서 대학생과 일반인의 교육에 임하는 열정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열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관심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일반인이나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지만, 흥미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루해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교육에 임하는 열정에 있어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교육 중 질문이나 문제를 던졌을 때, 돌아오는 대답이나 반응은 대학생과 일반인이 크게 차이가 난다. 대학생은 ‘정답(正答)’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일반인은 ‘해답(解答)’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강함을 느끼곤 한다.

정답(正答)과 해답(解答).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를 보면 큰 차이가 있다. 정답은 말 그대로 ‘옳은 답’이라는 의미를 가진 반면, 해답은 ‘질문이나 의문의 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이

정답과 해답, 무엇을 찾을 것인가?

나 의문의 풀이과정을 통해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문제 1> 1 + 1 = ?  
<문제 2> 제주에서 서울을 가는 가장 저렴한 교통수단은?  
<문제 1>에 대해서는 대학생이나 일반인이나 동일하게 ‘2’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나 <문제 2>에 대해서는 대학생과 일반인의 반응이 매우 차이가 있다. 대학생은 문제가 던져지면 바로 인터넷을 통해 교통수단별 요금을 검색한다. 그러나 일반인은 <문제 2>의 조건이나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의 의도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학강단에서 강의를 하다보면 학생들이 ‘정답’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한다. 중간고사 문제에 대한 문제풀이 방법을 설명해 주면 학생들은 자신의 답이 맞았는지 되묻는 경우가 있다. 오로지 정답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있는 모습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중고등학교 시절동안 정답을 찾는 교육만을 받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또는 지금껏 우리가 살아왔던 사회가 신속하고 명확한 결과를 요구하여 왔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치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앞서 가지 않으면 잡아먹히는

무서운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기술의 개발과 자기발전만이 생존을 보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기술제일주의’만을 추구하는 모습이나 ‘흑백논리’의 사고에 갇혀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안타까울 때가 있다.

‘기술’은 ‘돈(경제성)’ 앞에서는 한 순간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돈(경제성)’은 결국 ‘인간(이용자)’의 의사결정 속에서 선택되고 운용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초스피드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 사회구성원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며, 가치관의 혼돈과 다원화된 관점이 상존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더불어 숲’을 이루는 지혜가 요구되는 사회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정답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해답만이 있을 뿐이며, 그 중에서 최선안을 찾아야 하는 과정만이 존재함을 직시해야 한다. 최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차선안이 채택되는 의사결정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답(正答)과 해답(解答). 무엇을 찾을 것인가?  
위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으며 오로지 ‘선택’만이 존재할 뿐이다.

끊임없이 도전하자

동문칼럼



김용우  
이론학과 86학번  
해군 3함대사령부  
감찰실장

청명하고 높은 가을 하늘이 그 언제보다 아름답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또한 한해 농사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기도 하다. 지금 제주대 학생들도 큰 결실을 맺기 위해 사회로 나가고자 분주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제주대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끊임없이 도전하자’이다. 너무 상투적인 조언이라식상하다 생각 할지도 모르지만, 작은 열매라도 씨앗을 뿌리지 않고는 결실이 없듯이,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며 머릿속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고 계획을 짤다. 그런데 머릿속 상상만으로 그 계획은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도전은 당신이 원하는 결과물을 가져다 줄 것이며 그 결과물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또 다른 더 큰 결과물로 나를 인도해주는 디딤돌이 돼 줄 것이다.

나 역시 군 생활을 하며 이 자리까지 있기까지 많은 도전을 했다. '90년도, 해군소위로 임관해 이듬해 특수부대 해난구조대(SSU)의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고, 이후에는 잠수함 승조원 교육훈련에 도전해 암흑의 심해에서 잠수함 생활을 해보면서 인내와 성취감을 맛봤다. 이 모든 도전들은 지금의 내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됐고, 힘든 병사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헤아릴 수 있게 됐다.

요즘 사회에서 군 인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다. 병영문화혁신이라는 국민이 준 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병들의 인권보장과 병영부조리가 없는 행복한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마도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새내기 대학생들은 뉴스에 접하는 실망스러운 군 소식에 걱정이 앞서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강조하고 싶다. 지금 군은 변화하고 있으며 병사와 간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부조리 없는 병영을 만들어 가고 있다. 걱정하지 말고 해군을 지원해 드넓은 바다에서 원대한 꿈을 펼쳐보시기 바란다. 삶을 살아가면서 군함을 타고 바다를 누비는 것도 색다른 도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재학생 3·4학년은 취업준비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이 있을 것이다. 토익준비에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고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답답하고 풀리지 않을 때 당장 책상에서 벗어나 밖으로 돌아다니 보길 바란다. 일찍 일어나 새벽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활기찬 시장 사람들의 하루 시작을 보거나 아무도 없는 가로수 길을 혼자 거닐어 보라. 아니면 숨 막힐 때까지 뛰어보는 것도 좋다. 그렇게 돌아다니다보면 사각형 공간 안에서 고민하던 것들이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 설사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의 방향에 대해 진지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절실하게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걱정이 사라지고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된다. 만약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무엇이든 도전해야 한다. 훗날 그 도전했던 ‘무엇’이 나에게 앞으로 나아가고 꿈을 가지게 하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청춘과 젊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모르고 뒤늦게 알게 되는 선물과 같다. 뒤늦게 선물을 찾아보지만 사라지고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 선물을 찾으려고 도전하라. 각자 다른 선물일 것이니 얼마나 흥미로운 보물찾기인가. 그리고 찾은 보물을 풀어보길 바란다. 그것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행동하는 여러분 자신의 것이다.

청명한 가을하늘아래 결실을 맺는 곡식들처럼 좋은 결실을 맺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u.ac.kr

한국 역사에 자부심 갖는 자세 필요

독자기고

좌민정  
간호학과 1



고등학교 사회문화 시간에 중요시했던 개념이 있다. 바로 ‘비교론적 관점’이다. 비교론적 관점은 세계를 바라보는 방법 중 하나로 외국과 비교하며 자국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방법이다. 이 태도를 중요시 했던 이유는 세계화 가운데 자국 상황을 파악하고 발전하는데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도 올라섰다. 물론 빠른 산업화로 인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철강, 그리고 문화산업 등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도 생기고 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미국의 전자기기 회사인 ‘애플’에 대응하는 힘을 갖고 있고, ‘포스코’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철강회사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외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많으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은 서로 다르고 교류하면서 뒤섞이게 되어 거의 비슷한 생활양식을 갖게 되었다. 그에 반해 한·중·일은 의식주, 종교, 가치관 등 사소한 것들도 다르다. 예를 들어 모두 젓가락을 사용하더라도 중국은 뿔گیری가 많아서 그 길이가 길고, 우리나라는 밥에 풀기가 있어서 중간 길이이고, 일본은 밥이 못쳐지지 않아 젓가락의 길이가 짧다. 그리고 같은 한자 문화권인데

도 불구하고, 통역이 없으면 아주 조금의 한자는 통할 수 있어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힘들다. 고등학생 때, 중국어를 배우면서 너무나 다른 언어에 힘들어 했던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의 교류는 예전에 비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각 나라가 뒤섞일 만큼 마음의 문은 열지 않아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다양하고 독자적인 문화들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는 선진문화를 모델로 삼아 따라했다. 법과 제도는 미국의 것을, 경제는 일본의 것을 모방했다. 하지만 그러는 동시에 한국인의 순수혈통에 대한 배타성과 자신감, 근본도 지쳐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형 서양적 요소’와 ‘원형 한국적 요소’가 결합한 ‘글로벌 믹스’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가끔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이 서양의 문물로 이뤄져 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울해진다. 전기, 전자기기, 원자력 등 거의 모든 일상을 서양 문명에 둘러싸여 살고 있다. 서양의 것은 한국인에게 문명의 이기에 빠져 들게 해 전통을 등한시 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강한 열이 있다. 과거 전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켰던 정신이 아직도 흐르고 있다. 또한 아파트와 전통적인 온돌 방식을 결합했고, 퓨전 음식, 한옥 등을 창조시켜 거꾸로 외국에 전파하고 있다. 비록 지리적으로는 미국 속 하나의 주보다 작은 나라일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역량은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었다고 생각한다.

다문화가정 어려움 함께 고민해요

윤지현  
관광경영학과 1



제주대에는 많은 교환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교양수업을 통해 알게 된 거마들은 몽골에서 온 학생이다. 거마들은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꾸린 이모와 함께 살고 있다. 나는 그를 좀 더 이해하고, 그가 한국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주다문화가정센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도2동에 위치한 다문화가정센터는 외국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자생단체이다. 그곳에서 김정림 사무처장님에게 다문화가정에 대해 그 동안 궁금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다문화가정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 들었다. 다문화 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의사소통이다. 제주도내의 다문화 가정은 주로 외국인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이주하면서 생겨난다. 외국인 여성들은 몇 달 내에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 스트레스와 입덧 등으로 인해 한국어 습득에 집중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늦춰진 한국어 학습은 출산 후 육아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또 다른 문제는 소외현상이다. 그동안 함께 한 가족·친구들이 없는 낯선 환경에서 이주 여성들은 외로움을 느낀다.

또한 앞서 말한 의사소통 문제로 한국에서 새로 온 친구들을 사귀기도 힘들다. 이들의 의사소통 문제는 자녀에게 영향을 준다. 어머니가 한국어에

미숙한 경우 자녀들도 국어에 미숙한 경향이 있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왕따나 소외 현상을 겪고 있으며 무려 80%가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잘못된 지원은 다문화가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해 나라에서 위탁한 단체들은 연간 10~14억에 달하는 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게 도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지원금의 80%가 단체 내의 한국인 직원들을 위한 인건비, 전기세 등으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20%의 지원금으로 개최되는 행사·교육도 한국인 직원들만 가득해 소통 등의 문제로 참여가 힘들 뿐 아니라, 불필요하고 참여 의지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의사소통의 문제와, 잘못된 지원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교육은 취업의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취업문제로 생긴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시 교3곡 악순환으로 이어져 인재의 낭비와 다문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교내의 다문화학생들을 위해 서라도 다양한 강의와 프로그램들이 개설됐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정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시하여 이뤄지는 지원이 아닌, 다문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된 지원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함으로써 참여율도 높이고 학생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도움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제주대부터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에 힘써서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돕고, 다양한 인재들의 양성에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총여학생회 공약 이행률 78%... 14건 중 11개

“대운동장 환경미화사업 계속 시행했으면”

<2> ‘여기부터’ 총여학생회 상반기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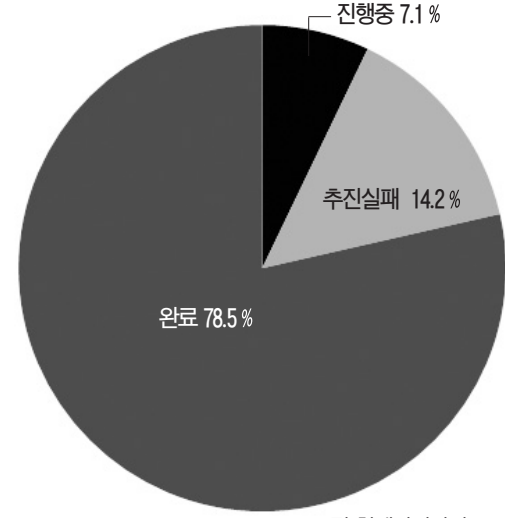
‘여기부터’ 총여학생회(회장 정승원 환경교육과 4)가 제주대 학생들의 대표를 맡은 지 한 학기가 지났다. 임기의 절반을 넘긴 상황에서, 제주대신문은 총여학생회의 상반기 실적을 평가하고자 한다.

◇공약 이행률

‘여기부터’ 총여학생회는 건강관리 및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홍보와 정보전달, 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14개 공약 중 11개를 지켜 약 78%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너나들이국 신설, 뭇난이 주의보, 4.3팔찌 제작 등의 주 공약이 진행됐다. 총여학생회는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센터장 정순여 회계학과 교수)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수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효과적인 홍보와 정보를 전달했다. 이와 더불어 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문두 의학과 교수)를 통해 저지경찰대 주관의 호신술 강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사립 중 학생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공약은 대운동장 미화 활동이다. 총여학생회는 KT&G 상상유니브와 함께 대운동장에서 ‘나눔을 그리는 손’이라는 주제로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회과학대학, 경상대학, 사범대학, 공과대학, 예술디자인 대학 등 총 5개 단과대학 3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테마가 있는 공간으로 도색작업을 실시했다. 이에 다소 미미하게 보였던 대운동장을 탈바꿈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총여생회의 미이행 공약은 자궁경부암 예방 주사 접종 편리화, 총여학생회실 내 인쇄기·팩스 설치, 화



여기부터 총여학생회 상반기 공약 이행률

장실통신문 추가 및 도서관 통신문 게시 등 3개의 공약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총여학생회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편리화는 사실상 현행처럼 버스 통해 집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다”며 “자세히 알아보니 외부에서 맞는 주사이기 때문에 세균문제 등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체방안

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여학생들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병원은 한국병원과 다산산부인과 등 두 곳 뿐이다. 총여학생회는 예방접종 편리화를 위해 집중을 할 수 있는 병원을 늘린다고 했지만 여전히 두 병원에서만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총여학생회실 내 인쇄기·팩스 설치의 학생회관에 위치한 복합기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 학교측은 따로 예산을 들어 인쇄기와 팩스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총여학생회 측에 전달했다.

화장실·도서관 통신문 게시 공약은 일부 단과대학에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총여학생회는 “게시물 부착 공약은 총여학생회가 각 단과대학 여성국장들에게 통신문을 전달하고 있다”며 “몇몇 단과대학에 통신문 전달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반적 평가

‘여기부터’ 총여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진행되는 행사를 SNS 혹은 통신문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 또한 할인혜택 가능 업체에 할인업체를 표시하는 등 학생들에게 할인혜택

의 정보를 알렷했다. 하지만 총여학생회의 홈페이지는 작년 ‘청춘결교’ 총여학생회 관리 이후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다. 조직도와 회의록, 각종 게시물들이 작년 게시글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전반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총여학생회 주관의 ‘여기부터와 함께 하는 가을 소풍’ 축제는 예코백 만들기, 여타벅스, 여기비어 등 여러 부스를 만들어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었다. 특히 예코백 만들기 코너와 텀블러 제공은 여학생들이 큰 호응을 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차기 총여학생회에 바라는 점도 밝혔다. 현재 대운동장 미화 작업이 1/3 크기 정도로 진행됐다. 차기 총여학생회가 계속해서 이어나가 완성을 시킨다면 훗날 제주대의 상징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대운동장 보수가 계속되어 총여학생회의 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설명이다.

총여학생회의 임기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여기부터 총여학생회는 선거운동본부 시절 말만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학우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발로 뛰면서 5천명의 여학우를 대신해서 솔선수범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약속을 지키도록 남은 임기동안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하윤 기자



정승원(환경교육과 4·왼쪽) 총여학생회장, 안은지(관광경영학과 3) 부총여학생회장

2014년도 상반기 ‘여기부터’  
총여학생회 공약이행표

<공약이행>

- |                        |   |
|------------------------|---|
| 1. 너나들이국 신설            | ○ |
| 2. 대운동장 스탠드 및 보조시설 미화  | ○ |
| 3. 4·3 팔찌 제작           | ○ |
| 4. ‘뭇난이 주의보’           | ○ |
| 5. 필라테스 체험 기회          | ○ |
| 6. 할인업체 표시             | ○ |
| 7.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접종 편리화   | X |
| 8. 대여물품에 트레이닝 바지 추가    | ○ |
| 9. 파우더룸 물품 추가          | ○ |
| 10. 총여에 인쇄기·팩스 설치      | X |
| 11. 화장실 통신문 내용 추가      | △ |
| 12. 도서관에도 통신문 게시       | ○ |
| 13. 교내 정류장에 버스 시간표 설치  | ○ |
| 14. 시험기간 여학생 수면실 시간 연장 | ○ |

<기존사업>

- |            |   |
|------------|---|
| 기부 장터 축제   | ○ |
| 후문 순찰대     | ○ |
| 택배 수령      | ○ |
| 대여 서비스     | ○ |
| 시험기간 간식 제공 | ○ |

- 완료(○) : 11개
- 진행중(△) : 1개
- 추진실배(X) : 2개



## 2014 아라대동제 총평

## 곳은 날씨 속에서도 학생참여 열기 후끈... 이색행사 눈길

2014 아라대동제가 지난달 23일부터 3일간 학내 곳곳에서 열렸다. ‘오춘기 : 쾨찰아 청춘이야’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대동제는 각종 강연과 동아리 공연, 위닝 월드컵, 청춘을 노래하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대학의 꽃이라 불리는 축제인 만큼 즐길거리도 많았지만 고집적인 학생들의 의식개신 등의 과제도 남겼다. 아라대동제를 여러 시선에서 자세히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 ◇대동제 프로그램 평

첫째 날에 준비된 권보선, 이금재씨의 청춘사용법 강연은 ‘오춘기 : 쾨찰아 청춘이야’라는 아라대동제의 부제에 걸맞은 강연이었다. 자전적 일주로 유명한 권보선씨는 ‘두바퀴로 그리는 기적’이란 강연 주제로 대학생들에게 자신의 성장과 존재감을 찾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금재씨는 낮에는 청년 사업가, 밤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자로 활동하는 자신의 일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청춘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했다. 몇몇 학생들은 강연이 무척 인상 깊었으며 날씨의 영향 때문에 체육관에서 강연이 진행된 것이 아쉽다는 의견을 남겼다.

학생들의 사연을 전달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 행사는 독특한 진행방식과 진솔한 사연이 오갔다는 평을 받았다. 자기소개서부터 자신의 창작사를 뽑내는 사연 등 다양한 애깃거리로 학생들의 흥미를 끌었다.

학과 간의 게임 대결로 이뤄진 ‘과 vs 과 : 응고집전’ 또한 학생들의 호응이 컸다. 총 10개 학과의 참여로 이뤄진 프로그램은 각 학과의 특성을 살린 게임 진행으로 볼거리를 제공했다. 김소연(인문홍보학과 1)씨는 “사과 꺾기 대결 등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특이한 게임 종목이 있어 흥미로웠다”며 “학과 홍보와 재미를 겸한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프로그램의 취지는 좋았으나 배팅 형식의 진행은 사형성을 조장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주유니버시티 축구단이 함께한 행사인 ‘2014 제대위닝월드컵’은 김영록, 이현호 선수의 해설과 선수팀과의 특별 경기도 준비돼 많은 학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게임을 비롯한 사인회와 포토존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가져 남·여 구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학생들의 끼를 마음껏 뽐내는 시간인 ‘청춘을 노래하다’는 새로운 평가 방식을 도입해 관심을 받았다.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했던 평가단을 학생 100명이 참여하는 청중평가단으로 변경, 보다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 청중 평가단으로 참가한 한 학생은 “예전 경연 프로그램의 경우, 우승자가 학생회

인맥에 좌우된다는 등 심사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며 “추첨으로 뽑힌 100명의 청중 평가단 방식은 우승자에 대한 편한 루머도 생기기 않고 공정한 결과라고 모두가 받아들인 것 같다”고 밝혔다.

그 외 동아리 공연이나 가수들의 공연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다. 스웨덴 세탁소, 로맨틱펀치 등의 인디밴드 공연, 팔로알토, 더블 게이 등의 힙합 공연 등 준비된 공연들이 뚜렷한 색을 띠고 있어 즐거기에 무난했다는 반응이 오갔다.

‘진짜’ 총학생회는 이번 대동제를 ‘수천만 원짜리 걸 그룹의 공연이나 폭죽놀이가 주가 되는 기존의 축제와는 다른, 학생다운 축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심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생들은 축제 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성운(행정학과 2)씨는 “이번에 마련된 과 vs 과, 너의 목소리가 들려 프로그램 등은 연예인들의 공연에만 관심 있던 학생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한다는 느낌을 받게 해줬다”며 “학생이 주가 된다는 축제의 컨셉이 더 반영됐으면 더욱 훌륭한 축제가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학생은 “쾨찰아 청춘이야라는 부제와 테마를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적지 날 준비된 강연에만 한정된 것 같아 조금 아쉽다”고 말했다.

## ◇주점·장터 등 부대 행사

학생회, 특정 단체 모임 등이 준비한 주점과 장터는 축제에 뽐낼 수 없는 요소다. 하지만 학생들이 체험 할 수 있는 부스 보다는 주로 판매 목적의 부스가 많았다는 점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부 장터에서는 전기 공급과 가스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분관 앞 도로에 위치한 소원나무는 상상 유니브 제주와 함께한 행사로 헌혈 봉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폭포 헌혈수치를 달성하면 불이 들어오게 만든 ‘헌혈등’을 함께 설치해 학생들에게 참여하도록 했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권제오름에서의 ‘공포체험- 여태껏 보지 못했던 공포’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호평이 오간 행사였다. 비 온 뒤의 쓸쓸년스러운 날씨가 무서워진 분위기 조성에 한 몫하고 스태프들의 분장이 정말 리얼했다고 참여 학생들은 전했다.

## ◇일부 학생들의 의식개신 필요

대동제의 고집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잔디밭 진흙 문제는 이번 축제에서도 이어졌다. 총학생회측은 축제를 즐기는 학생들에게 임시방편으로 비닐봉지를 지급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고 귀가하는 길에 비닐봉지를 아무 곳이나 버리고 가거나, 진흙을 화장실에서 씻어 휴투성으로 만들어 놓고 뒹국리를 안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또한 주점을 운영한 학생들과 장터 운영 업자들



23일부터 3일간 진행된 아라대동제에서 초대가수 노을이 공연을 하고 있다(사진 위). 아라대동제는 ‘청춘을 노래하다’ 등 학생들의 참여가 활발했으나(사진 왼쪽), 신발에 진흙이 묻은 채 건물 내를 돌아다녀(사진 오른쪽) 의식개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식자재와 쓰레기를 그냥 두고 간 경우가 있었다. 이 때문에 학내미화원들은 축제 다음날이 몹시 힘들었다고 한다.

한 학내미화원은 “무슨 일인데 시작이 중요하면 끝도 중요한 법인데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며 “매년 축제마다 제기되는 문제임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학생들의 성숙한 의식제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 ◇총학생회의 자체 평가

아라대동제를 주관한 ‘진짜’ 총학생회는 이번 대동제를 마치고 큰 숙제 하나를 해결한 것 같다는 만족감을 드러냈다. 값비싼 연예인들이 주가 되는 축제가 아닌, 많은 학생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고 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동아리들이 학생들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공연을 다양하게 선보였던 것,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초청 가수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 특색 있고 실력 있는 가수들의 공연을 진행한 것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노점상의 출입을 막고, 협상을 통해 질서있는 통제를 이끌어 냈다는 점을 덧붙였다.

불었다.

반면 대동제를 진행하며 아쉬웠던 부분은 날씨부분을 꼽았다. 총학생회는 태풍 예보를 듣고 축제를 연기하려고도 했으나 모든 학사일정과 축제 준비를 재조정 하는데 드는 예산과 시간을 생각해 대동제 강행을 결정했다. 축제의 메인 무대였던 잔디밭이 질퍽거리는 등 문제가 생긴 것이 무척 아쉽고, 그럼에도 한 마음으로 축제를 즐긴 학생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또한 축제를 대운동장에서 진행하려고 했으나 학교 측이 제대마을의 민원을 염려해 잔디밭을 이용케 한 점도 미련이 남는 부분이라 말했다.

고광표(경영학과 4)총학생회장은 “이번 아라 대동제를 통해 축제가 얼마나 인기 있는 연예인을 부르느냐에 좌우되지 않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모든 구성들이 축제의 성공 실패 여부를 따지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즐거운 축제 기간 동안 모든 것을 준비하고 운영하며 고생한 총학생회의 존재를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그는 “곳은 날씨 속에서도 아라대동제를 찾아주신 학우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강수빈 기자

## 제주 향토 식도락 여행

## 제주 음식은 낮선 사람도 반한다

여행에서 맛보는 즐거움은 또 하나의 행복이다. 그걸 증명하듯 최근 식도락 여행이 각광받고 있다. 식도락이란 ‘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 맛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일’의 뜻이다. 식도락 중심에는 지역의 향토음식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특이한 음식문화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향토음식 소개에 앞서 낮선 제주의 음식을 접하려는 두 사람과 동행했다.

먼저 만난 증흥(관광개발학과 3)씨는 제주도에 온 지 3년이 된 중국인 유학생이다. 제주도 향토음식에 대해 접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녀는 ‘흑돼지’라고 답했다. 잡내가 덜한 제주의 돼지는 유명한 식재료이다. 이번에 그녀가 접할 음식은 제주의 돼지와 모자반으로 만드는 목국이다.

모자반을 제주에서는 몸이라 불렀다. 돼지고기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고 끓인 국이 바로 목국이다. 돼지고기와 내장, 순대까지 삶아 낸 국물에 모자반을 넣고 끓이면 느끼함이 줄어들고 독특한 맛이 우러난다. 목국은 많은 손님을 치르는 집안의 대소사가 있을 때 특별히 만들어 먹었던 음식이었다. 이 국은 귀하다 귀한 돼지고기를 남김없이 이용하는 알뜰 조리의 본보기이자 온 마을 사람들이 나눠먹고자 애쓴 어울림과 나눔의 노력이 만들어낸 음식이다.

증흥씨에게 목국에 대해 소개하니 기대가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국 음식은 입맛에 잘 맞아요. 특히 육개장 같은 국물있는 음식을 좋아해요” 그녀는 밀반찬으로 나온 뽕젓(서귀포 지역에서 어획되는 큰 멸치를 염장하여 담근 젓갈)을 먹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처음 목국을 먹은 증흥씨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이때까지 먹었던 다른 국물들보다 진하다”며 그녀는 밥 한 그릇을 푹뚫 비웠다. 밥을 다 먹은 후 그녀는 “유학생들은 향토음식을 접하고 싶어도 어디서 먹어야 할지 모른다”며

“덕분에 오늘 제주도 향토음식에 대해 체험할 수 있어 고맙다”고 말했다.

김보라 기자



제주음식인 목국(왼쪽)과 물회를 시식하는 허빈(지구해양학과 2)씨(오른쪽).

## 대학가 소식

## 釜大新聞

부산대 학과 통폐합에 따른  
학생들 반발 이어져

통폐합 대상 학과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부산대는 2015년부터 공과대학과 나노과학기술대학 일부 학과들의 통폐합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해당 학과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전공과목 개설 및 수강 △학생회 활동 어려움 △갑작스런 학과 변경 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재학생 전공 학제는 그대로 유지된 채 신입생 전공 학제만 개편된다. 나노소재공학과 관계자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재학생의 학제는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제가 상이함에 따라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화학생명공학과 이지민(3) 회장은 “전공학제가 완전히 달라져 선배들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나노대에서는 학과 통폐합 방식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됐다. 나노대는 3개 학과가 2개 학과로 통폐합된다. 이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학생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A(나노소재공 3)씨는 “학과의 통폐합 사실을 갑작스레 공지받아 황당했다”고 말했다. 전공강의 폐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나노대는 통폐합 대상 학과의 전공 과목을 2018년까지만 개설할 계획이다. 때문에 2018년까지 졸업하지 못하는 재학생들은 전공강의 수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 高大新聞

갑작스레 폐강된  
외국어 교양강의

고려대는 2학기부터 외국어로 진행되는 교양수업과 공통교양의 폐강 기준을 수강인원 10명에서 20명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변경 과정에서 공지가 늦어 많은 구성원이 혼란을 빚었고,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폐강 기준 변경이 새롭게 적용되는 강의는 외국어로 진행되는 강의와 공통교양 등이다.

9월 11일, 문과대 국제어문학부 학과장들은 교무처에 외국어 강의 폐강 기준 변화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공문에는 외국어 강의 폐강 기준 강화로 인해 수업환경이 악화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교무처는 16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이번 학기에 한해 폐강 인원을 15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박성철 독어독문학과장은 “현대 외국어 강의는 한 교수 당 소수의 학생을 배정해 서로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며 “폐강 기준 변경은 세계화를 슬로건으로 삼는 본교의 이상에 역행하는 격”이라고 했다.

12명 학생이 수강신청해 폐강된 강의를 신청했던 사범대의 한 학생은 “수업 진행을 지난주까지 했다”며 “갑자기 수강인원이 15명에 미치지 못해 폐강됐다는 문자를 받아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처럼 직접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도 사전 공지가 없어 혼란이 야기됐다.

## 연세춘추

## 중도 소재불명자료 논란

연세대(원주캠퍼스) 중앙도서관 이용에 있어 소재불명자료 관리와 관련된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소재불명자료란 대출이 가능한 도서가 정해진 위치에 없어 소재가 불분명한 도서를 말한다. 학생들은 소재불명자료들이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종복(경영경제 13)씨는 “대출 가능 도서라고 검색된 책을 찾기 위해 지경돼있는 위치에 가보면 막상 책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학술정보원 문헌정보팀 김원만 직원은 “소재불명자료가 나타나는 이유는 학생들이 책을 보고 제자리에 되돌려 놓지 않는 경우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도서관 측은 소재불명자료 발생 시 ‘소재불명자료 신고계시판’을 통해 도서를 관리하고 있다. 김씨는 “소재불명자료가 접수되면 먼저 해당 도서의 위치와 대출 여부를 재확인하고 있다”며 “그 이후에는 해당 도서의 주변 일대를 검사한다”고 말했다. 도서관은 학생들이 신고계시판에 신고를 하는 경우 소재불명자료의 소재를 파악해 평균 3~4일 이내에 답변을 완료하고 있다.

현재 처음으로 신고가 들어온 2009년 9월부터 접수된 도서 모두 소재를 확인해 학생들에게 답변을 완료한 상태이다.

## 大學新聞

2015학년도부터  
재수강시 A+ 못받아

서울대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는 학점상환제의 세부 방침이 정해졌다. 지난 7월 대학본부는 서울대 학업성적 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예외 조항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세부 방침에 따르면 학점상환제는 2015년 1학기에 처음 수강하는 교과목부터 적용되며 2015년 이전에 수강한 과목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 성적의 상환선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학사과는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학생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본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세부 방침을 결정했다는 입장인 반면 총학은 학점상환제의 실효성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예나 부총학생회장(국어국문학과 10)은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본부에서 일방적으로 일을 급히 처리했다”고 밝혔다.

학점상환제의 세부 방침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김도현(물리천문학부 11)씨는 “재수강 과목에서 받을 수 있는 학점의 상환선을 A로 제한하는 것만으로 재수강이 가져오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 서울시립대신문

국가근로장학  
부당수급자 적발

서울시립대는 2013학년도 제2학기 국가근로장학 부당수급자를 적발했다. 적발된 인원은 5개 부서의 5명이며, 이는 한국공학재단이 근로장학생의 해외출입내역과 근무상황부를 대조해 밝혀낸 것이다.

적발사유는 허위 근로(1명), 출근부 기재 오류(1명), 대리 근로(2명)로 나타났다. 나머지 1명은 소명확인 처리됐다. 허위 근로 부당수급자는 출국 전에 근로를 해오던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상황부에는 근로를 한 것으로 기재해 적발됐다. 이에 장학금(18,000원)이 환수됐으며, 해당 관리부서는 2014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생배정 인원이 축소됐다. 출근부 기재 오류 부당수급자는 출국 전에 근로를 하긴 했으나 입국 후 근무상황부 작성기한을 넘겨버려 임의로 다른 부서의 근무상황부에 근로시간을 기록한 것이 적발됐다. 대리근로 부당수급자의 경우, 근로장학생 본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일주일 동안 친구에게 대리근로를 부탁한 것이 적발됐다.

원래 근로장학생이 일주일 정도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엔 새로운 근로장학생을 뽑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존의 근로장학생은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대리근로를 시켰던 것이다. 나머지 한 명은 예정보다 일찍 귀국해 근로를 마친 것이 확인돼 소명 확인 처리됐다.

## 이대학보

공휴일 휴강 강의  
지정된 기간에 보강

이대는 이번 학기부터 공휴일 때문에 휴강한 강의는 필수적으로 보강해야만 한다. 이전까지는 공휴일에 휴강할 경우 보강 시행 여부를 각 교수와 학생들에게 자율로 맡겼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정해진 기간에 일괄적으로 보강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교무처 교무팀은 이와 같은 내용을 7월 25일 확정된 뒤 학교 홈페이지 학사일정에 게재했다. 교무팀은 “교육부에서 이전까지 보강이 필수로 이뤄지지 않아 정해진 수업시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며 “지난 2월4일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발송한 공문에서 각 대학이 공휴일 휴강에 대한 보강 계획을 수립해 실시할 것을 권해, 1학기부터 학사일정 변경인을 논의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강일 지정방식을 두고 학생과 교수 일부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보강기간이 전공과목의 학기 말 시험기간과 대부분 겹쳐 수업 보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교무팀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보강 기간에 보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과 교수 간 협의가 이뤄지고 강의실 대여가 가능하다면 지정된 보강기간 전에 사전 보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휴강일과 보강일이 요일이 달라 교수와 학생 개인일 일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리·유주연 기자